

번역의 개념과 언어학적 번역론*

김 윤 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1. 머리말

번역학(Übersetzungswissenschaft, Translation Studies, Traductologie)은 1983년에 Moder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Bibliography에 등재된 이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번역학은 본질상 학제간 연구대상이며 특히 언어학, 통신과학, 해석학, 철학, 심리학, 기호학, 인지과학, 문학은 물론이고 미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Cicero 이래 약 2천년 동안 전통적 번역이론(전과학적 이론)은 성서와 명작의 번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 한편 번역학은 학문적 성격을 상실하고 실용적 면에만 치중하였다. 그러나 이차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학문, 경제, 정치, 사상,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번역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선진국에서는 학문적 욕구는 물론이고 실용적 필요에서 번역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번역에 관한 연구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번역문법과 번역문체론이 정립되었고 1956년에는 Warschau에서 국제번역가연맹총회가 개최되었다.

번역은 일차적으로 언어학적 문제이다. 왜냐하면 번역의 대상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의 본질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 인간의 행위로서의 번역은 언어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기능적(목적론적), 해석학적, 심리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의 집필 목적은 언어학적 번역이론을 토대로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해명하고 나아가서 가장 알맞은 번역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에 있다.

번역의 어려움은 그 연구대상인 언어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또 한편으로 저자와 번역자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차이점은 번역을 한층 더 어렵게 한다. 즉 저자는 모국어의 완벽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지만 번역자는 이미 제시된 원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자는 자신의 언어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약점만을 드러낸다. 번역자traduttore는 번역자traditore라는 이태리 속담이 번역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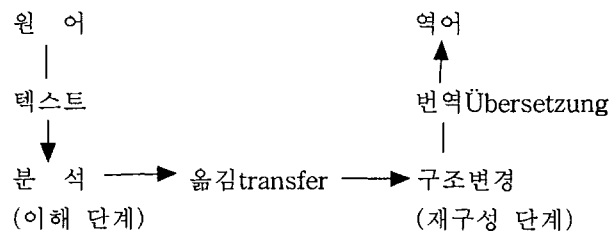
* 이 연구논문은 1999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번역학 심포지움(번역과 문학)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번역의 개념과 문제점

번역의 정의에 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번역이 단순한 언어기호의 전환이라는 정의로부터 문화의 전환이라는 정의까지 번역에 대한 그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번역을 언어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다. 따라서 번역을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번역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진다. 번역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번역학자들이 어떤 요인들을 번역과 연관시켰는지 다음에 간단히 도식화해서 설명하고자 한다(Koller 1979, 108~112):

- 1) A. Oettinger(1960) : 원어의 기호/표현/요소 \Rightarrow 역어의 기호/표현/요소
- 2) W. Winter(1961) : 원어의 세계분절을 해석해서 형식화(언어화) \Rightarrow 역어의 세계분절을 해석해서 형식화
- 3) I. Catford(1965) : 원어의 텍스트(자료) \Rightarrow 역어의 텍스트(자료)
- 4) E. Nida/Ch. Taber(1969) : 원어의 내용/문체 \Rightarrow 역어의 내용/문체
- 5) G. Jäger(1975) : 원어의 텍스트 \Rightarrow 역어의 의사소통적 등가텍스트
- 6) W. Wilss(1977) : 번역자의 관점에서 원어의 텍스트(이해 단계) \Rightarrow 역어의 텍스트(재구성 단계)

번역과정에 관련되는 요인과 조건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이고 이것들을 통합하려고 시도할 경우, 즉 번역을 언어적으로 정의하려고 할 때 번역의 정의는 매우 복잡해서 일목요연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번역학자들은 도식(모델)을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연구대상의 본질을 제시할 수 있다.¹⁾ Wilss(1981, 125)의 정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의 개념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등가Äquivalenz인데 번역에서 등가관계

1) 이러한 모델 그 자체는 아무런 설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지만 해설적 논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델은 기술되는 현상(여기에서는 번역)의 중요한 양상과 요인 및 조건을 그것들의 연관관계와 상호작용을 추상적이지만 분명한 형식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지닌다.

는 일방향성 Unidirektionalität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영어원본 ⇒ 불어번역 ⇒ 이탈리아어번역 ⇒ 독일어번역 ⇒ 다시 영문번역’을 할 경우 내용과 표현면에서 최초의 원문텍스트와는 전혀 다른 텍스트가 생성된다. 특히 문학작품의 번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매우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간의 역번역 Rückübersetzung의 경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과 스웨덴의 번역학자들의 번역심포지움(1969)에서 [Er setzt sich auf eine Kellertreffenstufe 그는 지하실 층계 위에 앉았다.] Er wickelte seine Stulle aus dem Stullenpapier 그는 포장지를 벗기고 버터를 바른 빵 조각을 꺼냈다. [Schweizerkäse drauf 그 빵 위에는 스위스 치즈가 얹혀 있다.]을 스웨덴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독일어로 역번역했는데, 열 사람의 일류 번역학자 모두가 원문과 다른 독일어의 문장으로 번역했다. 물론 하나의 원전에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여러 개의 번역본이 있을 수 있다(Koller 1979, 91).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전에 소홀히 했던 요인, 즉 번역의 독자, 번역의 계약, 편집, 출판, 위임자, 그리고 번역자의 위상 등 번역행위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이 번역의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번역은 단순히 기호의 전환이 아니고 변화된 인식체계내에서의 재구성 또는 새로운 구성이기 때문에 최근 번역자의 역할이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왜냐하면 번역자의 자질이 번역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번역에 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별어의 의미 Bedeutung와 그 대비적 비교에서 시작된다. 어장이론과 구조의미론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 개별어들의 의미는 대체로 상호간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복잡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별어간 의미의 차이 즉 개별어의 현실성 Wirklichkeit의 상이한 구성 Gestaltung에서 번역의 문제가 비롯된다. 번역은 적어도 원어텍스트가 의미한 모든 것을 역어의 표현수단을 통해서 재현해야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험적 기술 Technik을 바탕으로 언어상호간 상용관계를 생성하는 직역에 가까운 전이 Übertragung는 예술행위로서 언어상호간, 그리고 문화상호간 재구성이고 전이의 행위외에도 경우에 따라 적절한 예술적 구성, 인용, 적용, 모사, 패러디, 분석적 설명, 주석 및 해석 등의 방법을 포함하는 번역 Übersetzung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번역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번역 그 자체가 존재하며 번역은 표현차원에서의 단순한 대체가 아니다. 그러나 번역과 전이를 구별함으로써 번역에서 불변성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전통적 번역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내용의 불변성이나 또는 통례적으로 의의 Sinn의 불변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추상적인 최적의 불변성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번역은 목적론적, 전체론적 조건하에서 유효하고 또한 역동적 행위이므로 그 최적성은 의사소통 관련자, 의사소통 상황, 텍스트종류, 역사적 시기, 그리고 번역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개별어 의미의 상이한 현실구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점은 번역이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단어는 언제나 번역의 중심점이었다. 그러나 현대 번역이론에서 “단어는 번역될 수 없

다.”는 사실이 인지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문장 또는 텍스트도 번역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독일어 <Guten Morgen!> 문장(텍스트)조차도 직접적으로는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다.

따라서 번역의 관심분야는 개별어 체계내에서의 의미차원(랑그)이 아니고 텍스트의 의의(빠를)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만이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는 텍스트내적인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텍스트외적인 언어외적 수단의 도움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원칙의 토대 위에서 번역의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 번역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등가의 텍스트내용Inhalt, 즉 의의를 다른 언어에서 재생하는 과정이다. Coseriu는 이러한 가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조의미론의 범위내에서 세 종류의 언어내용(의미Bedeutung, 지시Bezeichnung, 텍스트의 내용Sinn)을 구분했다. 따라서 번역자의 임무는 역어의 수단을 통해서 등가의 체계의미(Bedeutung)가 아니라 등가의 지시와 등가의 의의를 재생하는 데 있다.

위의 논의에서 번역의 연구대상은 텍스트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에서 언어적으로 형식화된 것(말로 표현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언어적 표현만이 번역될 수 있다. 번역의 난해성은 상응하는 실재Realia가 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텍스트에서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에 내포된 실재는 번역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이러한 실재가 말해진 것에 속하지 않는 언어외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간의 구조적 불친화성에서 번역의 불가능성은 다음의 사항에 의해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 1) 모든 텍스트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가능하고,
- 2) 모든 언어는 (아무리 미발달언어라도) 궁극적 분석단계에서는 다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교적 다양한 표현가능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 3) 인간의 사고와 체험이 유사하고,
- 4) 텍스트의 내용(Sinn)은 의역, 주해, 설명, 비유 등의 형식으로 해명될 수 있다.

3. 언어학적 번역이론

번역학과 언어학은 상호간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 왔다. C-패러다임(역사주의 Historismus와 구조주의Strukturalismus)에서는 모듈구성 단위적 고찰방법modulare Betrachtung, 즉 모든 문제를 개별적-점진적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P-패러다임(실용주의Pragmatismus와 인식론Kognitivismus), 즉 언어이해와 언어 생성능력의 언어학에서는 전체적 방법holistische Betrachtung, 즉 언어연구에 역사와 사회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며, 연구의 주요주제는 언어행위의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언어학의 주요관심사는 언어체계의 구성단위, 내적 구조에서 인간행위의 복합

적 조직의 전체적 기능에 관한 연구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언어학의 발전경향에 상응해서 번역단위는 단어에서 텍스트로 확대되었고 번역의 영역은 랑그차원에서 빠를차원으로, 그리고 순수한 언어학적 모델에서 학제간 영역으로 옮겨졌다. 또 한편 등가결정은 번역자의 인식차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전통적 번역학에서는 원문이 중시되었으며 이론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직역과 의역 간의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번역자들이 번역작업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번역이론 정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즉 번역이론을 정립하고 번역과정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벽한 번역이론은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번역의 정의조차 확립되지 않았다.

필자는 언어학적 번역이론을 개별어의 언어체계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하겠다. 전자에서는 언어의 상대성과 보편성, 번역의 과정, 그리고 비교 문체론과 번역규칙 등이 번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후자에서는 텍스트와 화용론 등이 중시된다.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은 언어의 상대성과 보편성의 이론화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언어이론을 중심으로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논의한 후에 언어학적 번역이론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문체론과 텍스트언어학만으로 번역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3.1. 언어의 상대성이론과 보편성이론

Humboldt는 Aeschylus의 Agamemnon 번역의 서문에서 사고가 모국어와 종속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törig 1963, 71~96).²⁾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언어와 행위 간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Humboldt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정적인 목록(작품ergon)이 아니고 역동적인 힘(작용energeia)이며 동시에 문화와 화자 개별성의 표현이다.³⁾ Schleiermacher 역시 철학적, 그리고 시적 텍스트는 내용과 형식상으로 개별어적으로 특수화된 하나의 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언어가 바로 현실성의 상이한 개념이라는 Humboldt의 언어관은 약 100년 후에 Weisgerber와 Whorf에 의해 계승되었다.

내용문법의 대표자로서 Weisgerber는 언어를 정신적 중간세계Zwischenwelt, 모국어의 세계상Weltbild der Muttersprache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모든 언어는 다른 언어와 구분되며 그 자체로서 상대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체계를 형성한다. 개별어적 세계상의 존재이유로서 그는 친족명칭이나 색채의 상이한 체계, esprit영, gentleman신사, Gemütlichkeit안락함, Weltschmerz세계고 등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2) 어느 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 문화권에 전송된 언어를 통한 현실성 파악을 넘겨받는다는 뜻이다.

3) 번역의 불가능성은 Humboldt의 이러한 견해에 토대를 둔다.

어려운 점, 어장의 존재 등을 제시했다(Weisgerber 1950, 68). 문화와 관련한 현실성 파악과 언어사용의 연관관계는 배고픔, 두려움, 고통, 쾌락, 즐거움, 행복, 언어충동 등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영역에서 명확히 나타난다(Stolze 1994, 26).

정신적 중간세계와 외부세계 간에는 언어적 특성이 존재하고 언어는 언어공동체 구성원에게 모국어의 세계상을 중재한다는 견해, 즉 사고와 언어를 동일시하고 언어 구조에 의해서 현실파악이 결정된다는 이론이 언어상대성원리⁴⁾의 연구주제다. Whorf (1956, 57~64)의 이론은 Hopi 인디언어의 동사체계는 화자의 공간 및 시간 개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고대 바빌로니아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20세기에 현존하는 유럽의 개념이나 가치를 배제하고 그 시대 자체의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그 시대의 문화를 올바르게 고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개념성 *Eigenbegrifflichkeit*의 원칙을 제시했다(Snell-Hornby, 1988, 41).

모국어의 세계상이나 언어상대성이론에 의하면 번역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모든 번역은 모국어의 언어적 내용을 다른 모국어의 언어적 내용으로 옮기는 작업인데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모든 모국어가 서로 다른 정신적 중간세계를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Humboldt는 그의 언어철학적 관점에서 모든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Weisgerber나 Whorf는 언어정신의 도움으로 번역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언어상대성이론은 번역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에도 논의되고 있다. 언어가 민족의 문화나 정신의 직접적 표현이라면, 특히 형식과 내용이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는 문학작품의 번역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모든 언어에는 특수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편성도 존재한다. 번역은 바로 언어의 보편성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흥미있는 사실은 Humboldt가 언어의 보편성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언어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논리적-문법적으로 기술되고 분석될 수 있는 기호체계이다.⁵⁾

보편문법, 즉 Port-Royal의 문법은 1660년 프랑스의 합리주의 철학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Arnauld와 Lancelot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그들의 일반적이고 이론적-비판적인 문법은 일반적-논리적 형식의 개념에 기초하여 희랍어,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토대로 모든 언어에 유효한 일반적 범주를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⁶⁾

언어를 기호체계로 취급하는 논리적 고찰방법은 Saussure의 *Cours de linguistique*

-
- 4) 현재까지 이 이론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도 없다.
 - 5) 언어가 세계상을 모국어적으로 규정하는 힘이 아니고 사고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언어보편성이론은 모든 인간에 고유한 이성을 지식의 원천으로 가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든 언어가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형식을 공유한다는 가설은 보편언어의 개념을 설명해준다.
 - 6) 보편문법에서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적 기능을 가지며 언어는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도록 구성된 기호체계일 뿐이다.

générale(1916)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언어기호는 표현과 내용, 즉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적인 언어모델은 명칭과 내용표상의 견고한 공속감을 토대로 전개되었다. 기호의 의미는 Ogden/Richards(1923, 11)의 기호삼각도에 의해서 좀 더 정확히 기술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기호symbol(기표)는 기호내용으로서 사고(의미, 기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어외적 지시대상(실재)를 기호화한다.⁷⁾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을 표시하는 모델에 의하면 기호의 의미는 Saussure의 모델과는 달리 화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실제의 언어외적 대상을 지시하게 되어 비로소 파악된다. 기호는 청자에게도 단순히 정적인 무엇이 아니고 연관적 차원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기호는 청자에게 유효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해석)를 통해서만이 수신자에 의해서 구성되고 또한 의미를 갖게 된다(Stolze 1994, 31).

Bühler(1934, 28)는 언어의 Organon Modell에서 언어기호의 기능을 1) 서술의 기능, 2) 표현의 기능, 3) 효소의 기능으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언어기호의 기능은 텍스트유형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언어기호의 근본개념은 현대언어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많은 번역이론이 언어기호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어의 일반적-논리적 형식의 전통적 개념은 Chomsky 생성문법의 표준이론에서 언어의 외적 형식과 내적 형식의 이론으로 나타난다. Chomsky에 의하면 모든 언어의 표층구조는 서로 다르지만 “Form des Gedankens사고의 형식”을 표현하는 심층구조는 동일하다. 여기에서 “사고의 형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사상적, 즉 정신적인 문장의 의미내용을 표시하는 구조를 뜻한다. 심층구조를 표층구조로 변형시키는 모든 언어의 변형규칙 역시 상이하하다.⁸⁾

언어기호이론과 변형생성문법이론은 현대 번역학의 이론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비교의 기준점(논리적-문법적으로 기술되고 분석될 수 있는 언어기호, 언어의 보편소, 심층구조)을 토대로 모든 텍스트는 원칙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언어의 상대성(특수성)을 중시하느냐 또는 보편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번역의 양극단적 이론, 즉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대두된다. 언어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이 불가능한데 이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언어와 사고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언어의 보편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이 가능하다. 이는 번역이 단순한 언어기호의 전환이거나 표층구조를 보편적 심층구조로 변형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7) 이 모델에서 언어기호는 사물 그 자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8) 변형생성문법의 목적은 명확한 규칙체계를 통해서 언어의 암시적 지식을 묘사함으로써 인간 사고에 관한 논리적으로 설정된 이론을 창출하는 데 있다.

3.2. 텍스트언어학

1970년대 언어학자들은 문장의 경계를 초월하는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텍스트언어학이 정립되었다. 텍스트의 개념은 이미 기원후 400년 경 Hieronymus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 문장은 문법이라는 단순한 체계 안에서 정의되는 단위이지만 텍스트는 복합체계나 그 체계들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빠를 차원의 단위다. 텍스트는 인간 의사소통의 궁극적 단위이다. 문장은 문법성에 의존하지만 텍스트는 현실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속에서 실현되며 장면성, 상황성, 발화자의 의도에 의존한다.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표현의 구성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 구성체다. 텍스트는 스스로는 결속적이고 전체로는 인지가능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기호의 한정된 연쇄체라 할 수 있다. 텍스트성이란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1) 응집성, 2) 결속성, 3) 의도성, 4) 용인성, 5) 정보성, 6) 상황성, 7) 상호텍스트성을 일컫는다.

최근 빠를중심의 언어학¹⁰⁾에서 텍스트는 언어표현의 기본단위이며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텍스트는 번역의 기본단위다. 번역은 원어텍스트에서 최적의 역어텍스트의 등가를 생성하는 작업이므로 번역자는 원문의 문법, 문체론, 텍스트 화용론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Wilss 1982, 112). 전통적 번역이론에서는 텍스트유형과 번역방법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무시하고 번역될 텍스트와 번역방법 간의 상호의존성만을 중시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나 문학작품 번역이 그 당시 번역의 주된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에 상응하여 직역과 의역의 규범적 번역방법에 관한 문제가 번역이론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의 정보교환, 특히 과학과 기술분야에 관한 문헌번역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텍스트언어학, 즉 텍스트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번역방법에 관한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텍스트의 일반적 상황구속성으로부터 그 상황에 특수한 텍스트 생성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이 텍스트언어학의 목적이다. 번역학자들은 특정의 번역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는 텍스트유형의 분류에 관심을 둔다. 텍스트언어학의 텍스트응집력은 물론 텍스트유형의 텍스트내적 및 텍스트외적 표지에 관한 기술방법을 발전시켰는데 이것들의 대조적 비교는 번역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Nida의 성서번역 이래로 번역학자들은 단어나 문자의 번역이 아니라 총체로서 텍스트의 번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번역의 전제조건으로서 텍스트분석을 주장하였는데, 그 결과 텍스트언어학적 번역방법이 번역과 밀접한 관계를

9) Hieronymus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역자로 추앙을 받고 있으며 그의 사망일인 AD 420년 10월 30일은 번역자의 날로 지정되었다.

10) 현재 언어학의 중심과제는 랑그중심의 체계언어학이 아니고 실제 언어사용을 중시하는 번역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화용론 등의 빠를중심의 언어학이다.

갖게 되었다. 기호학에 기반을 둔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¹¹⁾가 복합적 언어기호로 간주된다. 텍스트는 언어학적 방법으로 기술되고 설명되며 또한 분류될 수 있는 텍스트외적 및 텍스트내적 표지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지의 도움으로 텍스트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경험상 상이한 텍스트는 번역과정에서 다르게 취급되는데 여기에 텍스트유형과 번역방법과의 관계 즉 번역학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가 성립된다.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텍스트생성을 모델화하여 기술할 수 있다는 가설에 토대를 둔다. 텍스트차원에서 통사적 구조에 관한 고찰은 번역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통사적 구조가 응집력 있는 텍스트 내부구조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Harweg 1968 참조). 텍스트분석의 중요한 요인은 문장시작, 문장끝, 문장열거 등을 알리는 기호, 상반적, 부가적, 양보적, 인과율의 시간적 화법을 나타내는 어휘, 접속사의 종류 등이다. 텍스트의 응집성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언어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이것들이 또한 번역과 텍스트언어학과의 연관관계를 형성한다.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유형은 Reiss(1971, 33)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그녀는 Bühler(1934, 28)의 언어 오르가노모델에 의거해서 텍스트를 1) 내용을 강조하는 텍스트유형, 2) 형식을 강조하는 텍스트유형, 3) 호소를 강조하는 텍스트유형으로 분류했다. 위의 사항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¹²⁾:

언어기능	— 서술	— 표현	— 호소
언어차원	— 논리적	— 미학적	— 대화적
텍스트유형	— 내용강조	— 형식강조	— 호소강조

모든 저자(텍스트의 집필자)들은 그들이 텍스트를 완성하기 전에 위에 열거한 모든 문화권에 존재해야 할 세 개의 의사소통상의 기본형식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유형이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이다(Reiss/Vermeer 1984, 206). Reiss에 의하면 텍스트유형은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번역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유형과 관련되는 번역방법은 원어 번역단위의 등가를 역어에서 찾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기능은 보존되어야 한다.

11) 텍스트는 순수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텍스트를 사회의 문맥에 기초한 세계연속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2) 물론 Reiss의 텍스트유형 분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이 분야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또한 현재 그녀의 분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Reiss의 텍스트 유형은 전통적 범주화이론의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 실현에 있어서 언어는 정적이고 명확한 범주의 체계로 축소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1) 내용을 중시하는 텍스트는 텍스트에 내재된 정보량이 손실없이 역어 독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2) 형식을 중시하는 표현적 텍스트, 즉 문학작품의 번역에서는 원어텍스트에 나타난 형식적 요인이 역어텍스트에서도 표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어텍스트의 예술성을 역어텍스트의 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¹³⁾ 3) 기동적 텍스트의 번역에서는 원어텍스트에 의해서 야기된 것과 동일한 행동자극 Verhaltensimpuls을 역어텍스트의 수신자들에게 일으켜야 한다. 번역가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문텍스트와 역문텍스트의 기능이 동일하게 번역하여야 한다. 따라서 텍스트유형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이한 번역방법이 설정된다(Stolze 1994, 109):

- 1) 정보를 중시하는 텍스트유형의 특성은 사물이나 사태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용상의 불변성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방법은 순수한 산문적 schlicht-prosaisch 이어야 한다.
- 2) 표현적 텍스트유형의 특성은 발신인중심적, 즉 개인의 예술적 창조성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서 예술적 조형의 유추에 있기 때문에 번역방법은 동일성 확인 identifizierend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3) 기동적 텍스트유형의 특성은 행위자극에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내재된 호소의 정체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응적 adaptierend 번역방법이 사용된다.

또 한편 위에서 논의한 세 텍스트유형에 관한 번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중심 텍스트번역의 목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전달의 불변성에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정보내용의 번역에 충실해야 하며, 또한 여기에서는 내용상의 수정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역어중심의 텍스트를 생성해야 한다.
- 2) 표현적 텍스트번역의 목적은 의미상의 불변성은 물론 보전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작가가 사용한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서 생성된 특별한 미적 작용을 역어의 독자들에게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용을 강조하는 텍스트유형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원어중심의 텍스트가 생성되어야 한다.
- 3) 기동적 텍스트번역의 목적은 역어텍스트의 청자 또는 독자에게 의도된 행위를 권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유형의 특성은 행위중심적이기 때문에 역어텍스트에 기동적 작용가능성이 보전되어야 한다.

13) 물론 최근 자연과학의 논문도 형식적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텍스트유형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3. 비교문체론

비교문체론은 민족심리를 바탕으로 한 언어간의 문체론의 비교인데 Vinay와 Darbelnet(1958) 등 불어권 학자들을 중심으로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문체론의 과제를 정신의 수용으로 보았다. Malblanc(1968)은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상이한 세계관을 찾아내는 데 문체론의 본질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번역을 의사소통의 과정이나 전위과정으로 규정할 경우, 구조적 차이점을 내용과 문체론적으로 어떻게 중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비교문체론의 목적은 이러한 언어쌍의 상이한 상응유형Entsprechungstyp과 관련된 번역과정을 과학적으로 기술하여 중화시키는데 있다.¹⁴⁾

Vinay와 Darbelnet(1958, 46~54)는 언어쌍, 즉 두 언어간의 번역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언어쌍에 관한 한 차용emprunt, 모사calgue, 축어역traduction littérale, 전환transposition, 변조modulation, 등가equivalence, 번안adaptation의 7개 범주 또는 이것들의 조합의 도움으로 번역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사용한 비교문체론의 용어들은 이질적일 뿐더러 비체계적이라는 비판과 수정 제안을 받았지만(Koller 1979, 235) 현재까지도 번역학(특히 번역의 오류분석과 번역비평), 외국어 교수법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한편 그들은 번역과정을 기술적deskriptiv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최초로 광범위한 시도를 했다. 이러한 기술방법은 직접번역traduction directe과 간접번역traduction indirecte으로 대별되는데 전자에는 차용, 모사, 축어역이, 후자에는 전환, 변조, 등가, 번안이 속한다. 그들은 이러한 기술적 분류를 통해서 두 언어간의 주종적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번역과정¹⁵⁾을 파악될 수 있는 일련의 언어학적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Stolze 1994, 60).

K. Kuepper는 이러한 분류법의 중복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대체substitution, 전환, 변조로 재분류했다. 그에 의하면 사실상 차용, 모사는 번역 이전의 단계이고 번안은 번역을 넘어선 것이다. Vinay와 Darbelnet의 7개 방법중에서 남은 것은 축어역¹⁶⁾, 전환, 변조, 등가뿐이다. 물론 번역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Kuepper의 분류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번역을 할 경우 역어의 관점에서 보면 Vinay와 Darbelnet의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실용적인 면에서 Vinay와 Darbelnet의 비교문체론적 번역과정에 관해서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어느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옮겨질 때 번역과정 표층구조 계층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존재한다(ibid. 60~64; Vinay와 Darbelnet 1958, 46~54):

14) Vinay와 Darbelnet(1958)은 영어와 프랑스어 간의 비교문체론, Malblanc(1968)는 독일어와 프랑스어 간의 비교문체론에 관한 연구를 했다.

15) Wilss(1977, 13)에 의하면 모든 번역작업은 두 언어라 할 수 있는 원어와 역어의 통사적, 어휘론적, 그리고 문체론적 규칙체계의 공시화, 즉 번역과정을 일컫는다.

16) Kuepper의 분류방법에 따르면 축어역은 대체에 해당된다.

3.3.1. 직접번역

- 1) 차용(Direktentlehnung) : 일반적으로 틈, 특히 메타언어적 간격을 매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번역방법인데 직접차용이라고도 한다. 즉 원어의 어휘를 철자법이나 내용상의 변경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¹⁷⁾ 이 방법은 문체상의 효과는 없지만 역어에 없는 개념이나 물건의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외래어적, 또는 외국문화적 색채를 그대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역어의 어휘체계를 풍부하게 하는 장점도 지닌다.
- cake케익, bulldozer블도저, party파티, pain빵, brain-drain브레인-드레인, know-how노하우, soundtrack사운드트랙, talk-show토크쇼, café카페, jet-set제트세트, chansong상송
- 이렇게 차용된 어휘는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역어의 서법과 음운에 동화되어 차용어Lehnwort가 된다.
- escalation-Eskalation강화, domino theory-Dominotheorie도미노 이론, status symbol-Statussymbol신분상징, pilot study-Pilotstudie예비연구
- 2) 모사(Lehnübersetzung) : 형태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원어 통사체의 배열과 같은 순서로 역어의 대체된 통사체를 배열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역어의 화자들이 이러한 배열 순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주로 명사 + 명사, 형용사 + 명사의 배열).
- growth rate-Wachstumsrate성장률, market search-Marketforschung시장조사, developing country-Entwicklungsland개발 도상국, Good morning-좋은 아침,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빕니다, weekend-주말, science fiction-공상과학
- 모사에는 표현의 모사(Compliments de la Saison)와 언어구조상의 모사(science fiction)가 있는데 전자는 역어의 통사적 구조를 존중하되 새로운 표현법을, 후자는 역어에 새로운 언어구조를 도입함을 뜻한다.
- 3) 축어역(wortgetreue Übersetzung) : 원어의 통사적 구조에 형식적으로 상응하고 내용상으로 의미가 같은 역어의 통사적 구조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는 그 자체가 유일하고 완벽한 번역의 해결책이다. 이러한 방법은 동일어족간의 번역뿐만 아니라 동일 문화권내에서의 번역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 He had stolen the money(그는 돈을 훔쳤다).-Er hatte das Geld gestohlen.
 - How many fish have you caught(너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느냐)?
- Wieviele Fische hast du gefangen?

17)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권과 달리 우리의 경우에 철자법은 달라진다(예: party파티).

3.3.2. 간접번역

- 1) 전환(Wortwechsel) : 번역시 원문 언어기호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다른 품사의 역문 언어기호로 전환하는 번역방법, 즉 단어의 뜻은 동일하지만 그 문법적 성격이 변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환은 임의적 전환과 의무적 전환으로 나뉜다.¹⁸⁾
- (1) 임의적 전환
- He announced that the president will leave.-그는 사장의 출발(또는 사장이 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 (2) 의무적 전환
- a victimless crime(희생자 없는 범죄)-ein Verbrechen, bei dem ausser dem Täter selbst niemand zu Schaden kommt(범죄자 자신 이외에 아무도 다치지 않은 범죄) → 독일어에는 “opferloses Verbrechen”라는 어법은 없다.
 - His face was red with shame(그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Ihm stand die Schamröte im Gesicht.
- 2) 변조(Modulation) : 관점을 바꾸어서 번역하는 방법, 즉 원문과 뜻은 같으나 다른 표현양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변조 역시 꼭 바꿔 주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변조와 꼭 바꿔 주어야 하는 의무적 변조로 나뉜다.
- (1) 임의적 변조
- It is not difficult to show that picture.-그 사진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다.
- (2) 의무적 변조
- Ich bekomme eine Gänsehaut.-나는 소름이 끼친다. J'ai la chais de poule.
- 3) 등가(Äquivalent) : 동일한 상황을 표시하기 때문에 뜻은 같지만 문장구조나 문체가 전혀 다른 표현의 번역방법을 나타낸다. 즉 원어의 상황을 의사소통상 비교될 수 있는 역어의 상황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인사형식이나 속담 등의 번역에 자주 쓰인다.
- Guten Appetit!-Enjoy your meal!
 - Too many cooks spoils the broth.-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뚝은 스프를 망친다).
- 4) 변안(Adaptation) : 변안은 등가의 특별한 경우(상황등가)라고 볼 수 있는데 텍스트에 관계되는 상황이 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등가성을 유지하되 다른 상황과 관련해서 번역이 창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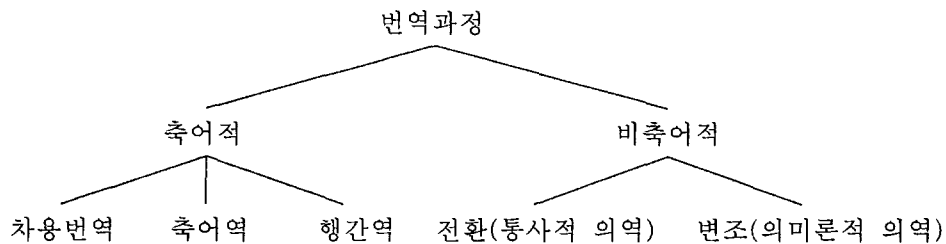
18) 임의적 전환은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 않아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주관적 또는 문체론적 이유에서 그 품사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무적 전환은 두 언어간에 서로 상응하는 어휘가 없거나 문법적, 구조적 차이가 심할 때 적용되는데 문학적 표현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역어 언어공동체간의 사회 및 문화적 차이를 텍스트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다.

· Good morning!-안녕하세요(좋은 아침입니다).

· Let's have a high tea tomorrow.-내일 저녁 같이 합시다(본 뜻은 “고급차”).

Vinay와 Darbelnet의 비교문체론에 쓰인 학술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Wilss(1977, 121)는 범주적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서열적 배치원칙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언어쌍과 관련되는 번역과정은 비교문체론 이외에도 Newmark(1988, 7장과 8장)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그가 제시한 7개의 번역과정translation procedures은 다음과 같다 (Stolze 1994, 65):

- 1) 전환transference : 원어의 단어를 역어에 그대로 옮긴다.
 - le baccalauréat-the baccalauréat(대학입학자격시험)
- 2) 문화적 등가cultural equivalent : 원어의 단어를 역어의 단어로 대체한다.
 - le baccalauréat-A level
- 3) 직접번역through translation : 공통적 언어를 축어역한다.
 - 유럽공동시장 la Communauté Européenne-the European Community
- 4) 축어역literal translation : 원어의 단어를 역어의 단어로 옮긴다.
 - faire un discours-eine Rede halten연설하다-make a speech
- 5) 기능등가functional equivalent : 문화적으로 특수한 원어의 어구를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역어의 어구로 옮긴다.
 - le baccalauréat-the French second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프랑스 중등학교 졸업시험
- 6) 기술적 등가descriptive equivalent : 문화적으로 특수한 원어의 어구term를 설명한다.
 - le baccalauréat-the French second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in which candidates take 8~10 subjects and which is necessary to gain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프랑스 중등학교 졸업시험인 동시에 대학입학자격 시험인데 후보자는 8~10과목의 시험을 치른다.

- 7) 번역의 결합방법translation couplet : 위의 방법중 2개를 결합해서 번역한다.
 · le baccalauréat-the “baccalauréat”, the French second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3.4. 통합적 번역방법

최근 M. Snell-Hornby(1988, 31~36)는 그녀의 저서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에서 1) 로마시대 이래로 전통적 번역방법의 어휘/감각, 울음/그림, 충실한/자유로운 등의 양극단적 이분법과, 2) 객관론자와 환원론자의 고전적 엄밀한 범주화 방법 즉 언어학적 번역이론의 발전을 저해해온 명확히 구분된 텍스트유형과 엄밀한 등가유형의 개념을 연속변이의 어느 동적 지점에 초점을 맞춘 원형에 기초한 전체론적, 계슈탈트적 원칙을 도입한 통합적 번역이론을 주창했다. 그녀는 여기에서 번역과 관련된 텍스트유형과 범주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 한편 그녀에 따르면 최근 R. Jakobsen이나 J. Levý 등의 저명한 학자들까지도 주장했던, 번역이 단순히 고립된 단어(고정개념)의 문제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번역이론의 출발점은 문화적 배경의 통합적 요인으로서 의사소통적 상황텍스트text-in-situation인데 텍스트분석은 텍스트의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 텍스트에서 기호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단어는 고립적 항목이 아니고 텍스트내에서 연관적 기능을 가진다. 한층 더 나아가서 텍스트는 언어의 정적인 표본으로서가 아니라(실제 번역에서는 현재에도 이러한 개념이 지배적이다) 본질적으로 독자로서 번역자가 이해한 저자 의도의 발화된 표현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번역자는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독자 등을 위한 이 모든 것을 재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역동적 과정은 왜 새로운 문학적 번역이론의 정립이 항상 요구되며 또한 왜 완벽한 번역이 존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4. 맺음말

번역의 실제 행위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번역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번역은 본질적으로 학제간의 연구대상이다. 번역은 결코 단순한 언어기호의 전환이 아니다. 문자라는 형식 속에는 그 언어 사용자의 정신, 문화, 세계관 등 역동적이고 고유한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른 형식(표현 수단)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번역인 것이다. 최적의 번역을 하기 위해서 번역가는 언어내적 사항, 예컨대 원어의 문법, 문체론, 텍스트화용론 등에 관해서는 물론 언어외적 사항인 문화, 세계관 등에 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지녀야 한다. 또 한편 번역은 제2의 창작으로서 규범적이 아니고 창조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번역가 자신의 번역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의미나 표현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번역은 원문텍스트를 이해, 분석하고 번역등가를 찾아서 원문텍스트에 상응하는 역문텍스트를 생성하는 창조적 활동이므로 번역가는 언어학적, 해석학적, 창조적 능력 외에도 직감과 정확한 판단력은 물론 사회, 문화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우리는 번역이 언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번역의 일차적 대상은 언어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모든 번역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번역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편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번역비평의 객관적 기준이 된다.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텍스트생성을 모델화하여 기술할 수 있다는 가설에 토대를 둔다. 특히 텍스트 차원에서 통사적 구조분석은 번역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응집력이 있고 상황성을 지니는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번역은 텍스트중심이어야 하며 기록된 원어텍스트에서 최적의 역어텍스트의 번역등가를 창출하고 문체론적으로 최적의 역어텍스트를 생성하는 작업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학적 번역이론에서는 텍스트언어학과 문체론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텍스트언어학의 출현과 더불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번역학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텍스트언어학은 원어텍스트의 내부구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필수적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문체론은 이렇게 하여 해석된 내용을 최적의 역어텍스트로 번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역어텍스트중심의 번역이론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문체론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번역은 텍스트언어학에서 시작하여 문체론에서 끝난다.

언어학적 번역방법으로는 원문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량의 30%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번역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번역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언어학적 번역이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보다 더 훌륭한 번역방법을 추구하는 번역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코 헛되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필자는 굳게 믿는다.

참 고 문 헌

- Bühler, K., 1934. *Sprachtheorie*. Stuttgart.
 C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Harweg, R. 1968. *Pronomina und Textkonstitution*. München.
 Koller, W. 1979(교정판 1992).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Heidelberg.
 Malblanc, A. 1968.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llemand. Essai de*

- représentation linguistique comparée et Etude de traduction*. Paris.
-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London.
- Ogden, C./Richards, I. 1923. *The Meaning of meaning*. New York.
- Reiss, K. 1971⁽²⁾(1982).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Kategorien und Kriterien für eine sachgerechte Beurteilung von Übersetzungen*. München.
- Reiss, K./Vermeer, H. 1984.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 Snell-Hornby, M.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r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 Stolze, R. 1994. *Übersetzungstheorie. Eine Einführung*. Tübingen.
- Störig, H. (Hg). 1963.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Darmstadt.
- Vernay, J./Darbelnet, J. 1958.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 Méthode de Traduction*. Paris.
- Weisgerber, L. 1950.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Düsseldorf.
- Whorf, L.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Cambridge/Mass.
- Wilss, W. 1977. *Übersetzungswissenschaft. Probleme und Methoden*(영역본: W. Wilss. 1982. *The Science of Translation. Problems and Methods*. Tübingen).
- _____. 1981. *Übersetzungswissenschaf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 Zusammenfassung

Übersetzungsbegriffe und Linguistische Übersetzungstheorien

Youn-Han Kim

Seit Jeher wurde übersetzt und zwischen Angehörigen verschiedener Sprachgemeinschaften vermittelt. Frühe Übersetzer begründen ihre Methode, doch es gelingt noch nicht, das Übersetzen als eine spezifische Sprachverwendung theoretisch aufzufassen und wissenschaftlich zu beschreiben.

Die am Übersetzungsvorgang beteiligten Faktoren und Bedingungen sind der Text, die beteiligten Sprachen, der Prozess der Überführung des AS-Textes in einen ZS-Text, der kommunikative Hintergrund von AS-Text und ZS-Text, der Übersetzer, der Empfänger der Übersetzung.

Es interessiert hier nicht die philosophisch-hermeneutischen und ästhetisch-literaturwissenschaftlichen Definitionen des Übersetzungsprozess, das Übersetzen einerseits als Verstehens- und Auslegungsprozess, andererseits als schöpferisch-künstlerischen, rein subjektiven Übersetzungsvorgang zu bestimmen. Die Übersetzungsdefinitionen sind in keinem Fall rein deskriptiv und sie erhalten immer ein normatives Element. Die normative Aspekt kommt in Begriff der Äquivalenz zum Ausdruck.

Wenn Sprachen als direkten Ausdruck einer Kultur, einer nationalen Eigentümlichkeit gesehen werden, können fremde Texte immer nur annähernd übersetzt werden.

Eine ganz andere Ausgangsposition für das Übersetzen ergibt sich, wenn die Sprache nicht als eine Kraft (linguistische Relativitätsprinzip), die ein Weltbild muttersprachlich determiniert, sondern als Kommunikationsinstrument (universalistische Sprachtheorie) mit der Funktion, den Gedanken Ausdruck zu verleihen. Das Übersetzen ist extrem schwierig, wenn nicht gar unmöglich, wenn man das Übersetzen aus dem Prinzip des muttersprachlichen Weltbildes sieht. Wenn man umgekehrt mit Zeichentheorien und universalistischen Übersetzungstheorien anfängt, sind alle Texte prinzipiell übersetzbar.

Die Sprache als Kommunikationsinstrument ist ein Zeichensystem, das logisch-grammatisch beschrieben werden kann. Auch die einzelnen Sprachzeichen sind

analysierbar.

Als Faustregel lehrte man langezeit bis heute : "so wörtlich wie möglich und so frei wie nötig übersetzen". Die Übersetzungstheorien werden formuliert, sobald die Praxis nicht mehr reibungslos funktioniert und sich ein Bewußtsein über die jeweilige Problematik entwickelt.

Die linguistischen Übersetzungstheorien sind die Grundlage des allen Übersetzungstheorien. Sie sind aus einem Prozess kontinuierlicher Reflexion über das Übersetzen und Sprachwissenschaft erwachsen. Die Entwicklung führte dabei von engeren Bereich einer Lexemanalyse über Wortfeldstudie bis hin Textlinguistik, wobei übersetzungsorientierte Fragestellungen die sprachwissenschaftlichen Erörterungen stets begleiten.

Die textlinguistische Erweiterung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hat das Augenmerk auf wertvolle Aspekte der Textkonstitution, Kohärenz und Textgliederung gelenkt, die wissenschaftlich analysierbar sind. Mit ihrer Hilfe können übersetzungspraktische Probleme eines Textes präzisiert und Charakteristika von Texttypen im kontrastiven Vergleich beschrieben werden. Am Beginn sprachwissenschaftlichen Erörterungen stand eine textlinguistische Übersetzungstheorie.

Texte als jeweils Ganzes haben in sich eine umgreifende Gesamtheit, die die Einzelbedeutungen der Sätze spezifisch relativiert und keineswegs nur aus der Addition dieser autonomen Satzbedeutungen besteht. Aus dieser Beobachtung ergab sich für uns die Aufgabenstellung eines bilingualen Übersetzungsvergleichs als Gegenüberstellung von Original und Übersetzung bei gleichzeitiger Berücksichtigung textlinguistischer Aspekte.

Die Grundlage des Übersetzens ist das Verstehen. In einem Text wird immer mehr gemeint als gesagt ist. Die Textlinguistik sieht den Text als komplexes sprachliches Zeichen. Texte erhalten textinterne und textexterne Merkmale, die man mit linguistischen Methoden beschreiben und erklären kann.

Besondere Resonanz in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hat die übersetzungsrelevante Texttypologie bei Reiss gefunden. Reiss vertritt nun die Meinung, daß der Texttyp infolge seines je spezifischen Charakters über die zu wählende Übersetzungsmethode entscheide. Das textbezogene Übersetzungsverfahren wird verstanden als die Suche nach Äquivalenten für ausgangssprachlichen Übersetzungseinheiten der zielsprachlichen Gestaltung. Dabei soll die Textfunktion erhalten bleiben.

Beim Übersetzen stellt es sich die Frage, wie man sprachlich operieren muß, um ausgangs- und zielsprachliche Textintegration zu gewährleisten und interlinguale Strukturdivergenzen auf inhaltlich und stilistisch adäquate Weise zu neutralisieren.

Für eine wissenschaftliche Beschreibung der praktischen Lösungen beim Übergang von einer Sprache zur anderen angesichts der verschiedenen Entsprechungstypen in einem Sprachpaar ist der von *Stylistique comparée* vorwiegend in französischer Sprache entwickelte übersetzungstheoretische Ansatz grundlegend geworden

Die sprachpaarbezogene Übersetzungswissenschaft klassifiziert deskriptiv das Verhalten von Übersetzern und verwendet die gewonnenen Kategorien dann präskriptiv für die Übersetzungsdidaktik. Daher wird hier von einer Technik des Übersetzens anhand der Oberflächenstrukturen auf der Textebene gesprochen im Sinne erlernbarer Prozeduren zur Herstellung einer inhaltlich genauen Übersetzung. Von der *Stylistique comparée* wurden folgende sieben übersetzungsprozedurale Hauptklassen gebildet, von denen die ersten drei dem Bereich der wörtlichen Übersetzung (*traduction directe*) und vier der nichtwörtlichen Übersetzung (*traduction oblique*) zurechnen sind:

- | | | |
|-------------------|----------------|--------------------------|
| 1) emprunt, | 2) calque, | 3) traduction littérale, |
| 4) transposition, | 5) modulation, | 6) équivalence, |
| 7) adaptation | | |

Anhand umfangreicher Beispieldiskussionen gelangt die Vertreter der *Stylistique comparée* zu dem Ergebnis, daß alles Übersetzen unter sieben, oft in kombinierter Form auftretenden Hauptkategorien subsumierbar ist.